

원문(ST)의 이끔부를 통해 본 노트테이킹(NT)과 통역 텍스트(TT)의 상관성*

이 주 은 · 김미라
(부산대 · UNSW)

1. 서론

통역 학습자에게나 통역 교수자에게 순차통역의 중간 텍스트로서의 노트테이킹(notetaking, 이하 NT)은 체득에 있어서나 교수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영역이다. 특히, 통역 훈련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에게는 NT 기술 습득이 마치 제2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낯설고 부담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는 NT가 고유한 방법과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언어와 차별화(Kohn & Albl-Mikasa 2002: 259)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NT의 특수성 때문에 그동안 국내외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다양한 각도에서 의미 있는 결론들이 도출되었다. NT 연구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NT의 궁극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BK21 플러스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즉, NT의 목적이 원문(source text, 이하 ST)의 언어적 요소 및 정보적 요소를 기억과 노트를 통해 잘 추출해서 통역문(target text, 이하 TT)에서 ST 메시지를 정확하게 재현해내는 것을 돕는 것(González 2012: 60)임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NT 연구를 독립적인 영역으로 다루기보다는 TT의 생성과 연계하여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츠미엘(Chmiel 2010: 248)도 순차통역 연구를 위해 중간 생성물인 노트와 최종 생성물인 TT를 모두 연구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는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통역 학습자의 NT와 통역 결과로서의 TT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NT에 대한 연구 못지않게 통역, 특히 통역 품질에 대한 연구도 다방면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때 TT에 대한 분석은 주로 통역 시의 시간 계산, 머뭇거림, 누락, 반복, 수정, 통사구조의 선택 등 실수를 계수하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한정은 2013: 159). 즉, 통역의 충실성의 평가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아 처방적(prescriptive) 접근을 보인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충실성에 기반한 통역품질 평가보다는 통역 학습자가 N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TT에서 상응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기술적(descriptive) 관점에서 고찰했다.

특히, 객관적 지표의 부재로 통역 결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고자 체계기능문법(systemic functional grammar, 이하 SFG)의 자원을 활용하여 텍스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미 SFG를 활용한 텍스트 분석이 통번역 학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번역 연구에 활용한 사례가 다수 있다. 가령, 김미라(Kim 2009)는 통번역 품질평가가 객관적인 기준의 부재로 여전히 주관적인 평가에 머무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의미 오류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역설한다. 그는 이러한 것 대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습자들에게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기 어려워 이를 극복하고자 할리데이와 마티슨(Halliday & Mattiessen 2014)의 SFG를 적용한 번역 평가 모델을 제시하면서 의미의 정확성과 자연스러움을 경험적(experiential), 논리적(logical), 대인적(interpersonal), 그리고 텍스트적(textual) 층위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도하였다.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그는 이러한 접근이 학습자와 교수자에게 오류를 분별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기에 적절하다고 설명한다.

통번역학에 SFG를 접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번

역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어 통역에 적용한 연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동안 번역에 국한해 분석의 잣대로 활용된 메타기능을 통역 연구에 적용하여 SFG의 효용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TT에 대한 텍스트적 의미를 조명하되, 특히, 이끔부(Theme)를 잣대로 ST-NT-TT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끔부는 김미라(2012: 59-60)가 Theme에 관한 자신의 논문에서 언급한 명칭으로, 할리데이가 제시한 Theme과 Rheme에 대해 ‘주제-평언’, ‘토픽-코멘트’, ‘주제부-설명부’, ‘테마-레마’ 등의 개념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끔부-팔림부’라는 명칭을 소개했다. 이는 할리데이가 Theme에 대해 주어진 정보(given information)와 담화의 출발점(point of departure of the message)이라는 두 개념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한 것에 착안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끔부(Theme)를 기준으로 ST의 이끔부가 NT에 어떻게 표기되었는지 살펴보고, 이후 실제 통역과정에서 NT의 기록이 TT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통역 학습자의 NT에 나타나는 패턴을 관찰하고 TT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채택된 구현 전략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2.1 노트테이킹과 통역

그동안 통역과 관련된 연구에서 NT를 주제로 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연구 관점도 다양한데, 가령 도착어로 NT할 때의 교육적 장점을 제시한 연구(이창수 2001), 학습자를 대상으로 NT 현상을 분석한 연구(Lim 2012, 2010, 2006a, 2006b; González 2012), NT 교수법을 탐구한 연구(이지은 & 최문선 2012; Chmiel 2010), 그리고 NT의 제반 현상과 특징에 대한 연구(Kohn & Albl-Mikasa 2002; Ahrens 2005) 등이 있다. 곤자레즈(González 2012: 61)는 순차통역사의 NT를 초급(beginner), 고급(advanced), 전문가(professional)의 세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의 특징을 기술하는데, 특히, 그가 초급 통역 학습자의 특징에 대해 제시한 사항이 본고에 참조가 되었다. 가령, ST에 대한 부족한 이해력, NT 방법 미숙, NT 기록과 담화 처리의 동시화

한계, 모니터링 및 보상전략 미비 등이다. 이러한 수준의 학습자들이 생성한 NT와 TT는 수많은 오류와 미비점 때문에 분석이 사실상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이 사전에 통역 연습을 해본 ST를 연구에 활용함으로써 개인차 및 초급자로서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였다.

츠미엘(Chmiel 2010: 237)은 통역 학습자에게 일관된 NT 체계를 가르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다만 학습자들에게 사용가능한 도구를 제시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인지 능력에 따라 소개된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아렌스(Ahrens 2001: 239)도 NT 교육이 갖추어야 할 일련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NT의 다양한 체계를 소개하고 기본 원리를 숙지시켜 개별 체계를 구축하는 토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댐(Dam 1998: 52, 이지은 & 최문선 2012에서 재인용)은 순차통역에서 원문의 통사론적 구조보다 어휘가 더 중요하며 노트하는 어휘의 질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본고의 초점이 메시지 구조상의 출발점인 이끔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본고에서는 통사론적 구조와 어휘를 동시에 분석하는 결과가 된다.

2.2 체계기능문법과 통번역 연구

본 논문은 이상의 선행연구와 같이 NT에 초점을 둔 연구이나 기존의 연구 분석틀과 달리 SGF를 접목하여 NT와 TT 분석을 시도하였다. SFG가 국내외 번역 관련 연구(이창수 2012; Lee Sang-bin 2011; 송연석 2011; Lee Chang-soo 2010, Kim 2009; Kim 2007a; Kim 2007b)에 적용되어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에 반해 국내 통역 연구에 적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 결과를 통해 통역 연구를 위한 SFG의 의의를 발견하고, SFG를 접목한 다양한 후속 연구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할리데이와 마티슨(2004)의 SFG는 언어 사용이 문화적 맥락(context of culture) 및 상황적 맥락(context of situation)의 영향을 받으며, 무수히 많은 언어 자원을 언어 시스템에서 선택한 결과로 보고, 그렇게 형성된 담화가 생성해내는 의미와 기능에 주목한다. 여기서 상황적 맥락은 다시 필드(field), 테너(tenor), 모드(mode)로 구분되는데, 담화에서는 각각 관념적, 대인적, 텍스트적

의미로 실현된다. SFG에서는 담화의 ‘무엇’에 해당하는 필드와 ‘누구’에 해당하는 테너와 ‘어떻게’에 해당하는 모드를 모두 분석의 대상에 포함한다.

본 연구는 SFG를 통역 분석에 적용해보는 시도로서, 먼저 텍스트적 의미를 규명할 수 있는 ST의 이끔부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응하는 NT의 요소와 TT의 구현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할리데이와 마티슨(2014: 89)은 이끔부를 메시지의 출발점(point of departure of the message)으로 보았으며, 화자가 선택한 이끔부는 청자가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안내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한 절에서의 이끔부는 경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첫 단위(group or phrase)가 되는데, 여기에는 참여자(participant), 정황(circumstance), 과정(process)이 해당된다(ibid.: 91). 이끔부는 복합적인 형태로도 나타나는데, 텍스트적, 대인적 또는 주제(topical) 이끔부가 모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때, 이끔부에 경험적 의미 요소가 한 개만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ibid.: 105).

영어에서는 절의 출발점이 중요하고 구별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후 텍스트 전개에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된다(Butt, et al., 2012). 그러므로 ST의 이끔부를 분석함으로써 ST의 의미상 구조가 NT에 어떤 방식으로 기록이 되었으며, 이는 다시 TT에서 어떤 형태로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번역 연구에서도 이끔부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가령 한송이(Han, 2010)가 영어 TV 다큐멘터리에 대한 한국어 번역에 있어 Theme의 선택을 분석한 연구나, 진실로(2012)가 주제구조를 고려한 영한 번역전략을 연구한 내용, 그리고 김미라(Kim 2011, 2009, 2007b)가 번역에서의 이끔부 선택에 따라 번역을 읽는 독자가 다르게 반응함을 보여준 연구결과가 있다.

이끔부 이론과 함께 텍스트의 정보성도 중요한 개념인데, 할리데이와 마티슨은 정보성이 이미 알고 있는 것 또는 예측 가능한 것(what is already known or predictable)과 새로운 것 또는 예측 불가능한 것(what is new or unpredictable)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tension)이라고 설명한다(2014: 116). 한 정보 단위 내에 신정보(new)와 구정보(given)의 두 기능이 공존한다.

본 논문에서도 ST 이끔부의 분석을 토대로 이에 대응하는 학습자의 NT 기록 형태를 파악하고 NT가 TT에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절의 정보성에 근거하여 신정보와 구정보의 양상을 기준으로 분석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3. 분석 텍스트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영어를 전공하는 일반대학원생(석 박사) 중 통역 입문 수업¹⁾을 수강한 10명을 대상으로 8주차에 실시한 중간고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대다수의 수강생들은 통역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중간고사에 이르는 7주간의 훈련을 통해 NT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이 소개되었고 여기에는 NT의 레이아웃, 텍스트 요소 배치 및 구분, 기호 및 약어 활용 등이 포함되었다. 아렌스(Ahrens 2005: 13)도 통역 학습자에게 NT의 다양한 시스템과 선택 가능한 사항들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NT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기록이므로 제시된 각종 방법을 활용하는 정도는 개인차가 나타났다.

통역 중간고사 시험에 사용된 ST는 ‘제6회 아시아 영화제’의 연설문²⁾이다.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각종 영화제가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는 부산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영화제는 비교적 친숙한 주제이므로 영화제 관련 연설문을 채택함으로써 배경지식의 차이로 인한 통역 품질 차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최문선(2012: 267)도 자신의 연구 결과를 통해 통역의 주제가 텍스트 난이도 선정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험 원고는 7주간의 수업 중에 이미 연습을 한 텍스트인데, 사전에 통역해 본 경험이 있는 텍스트를 선택한 이유는 본 연구의 방향이 학습자들의 통역 오류를 분석하거나 통역품질에 대한 평가를 하는 처방적 접근(prescriptive approach)이 아니라, 학습자가 ST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NT가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고 그에 근거해 TT가 어떤 형태로 생성되는지를 관찰하는 기술적 접근(descriptive approach)이기 때문이다. 통역 학습자들의 언어적 능력에 대한 편차와 문법 및 표현에 대한 이해 차이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NT에 대한 대조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Lim 2012: 248), 사전에 학습한 텍스트를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시험 방식은 먼저, 시험 진행자가 ST를 한번 낭독하고, 학습자가 NT를 활용하여 TT를 녹음하도록 했으며, 녹음 결과는 전사하여 최종 TT를 생성했다.

1) 교과목명은 ‘영한 및 한영 순차통역’임

2) Speech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6th Asian Film Festival (2011.4.20.) by H.E. Ambassador Liu Xinsheng (별첨)

ST 낭독은 휴지(pause)없이 한 번에 읽고 전체를 낭독했다.

텍스트 분석 단계에서는 먼저 ST의 이끔부를 선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NT 및 TT의 대응부³⁾와 대조하였다. ST 이끔부는 ST를 절(clause) 단위로 나눈 후에 할리데이의 이끔부 이론에 근거하여 선택했으며, NT의 이끔부는 할리데이가 이끔부를 ‘출발점’으로 정의내린 것에 착안하여, NT 상에서 ‘출발점’ 위치에 기록된 요소를 대응부로 설정하였다. 이는 좌측 상단, 중간 상단 등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공간상 구분된 영역을 차지하며 기록내용의 시작 지점이 된다. 마지막으로 ST의 이끔부를 기준으로 이에 대응하는 TT 요소를 전사 텍스트에서 확인했다. 이렇게 ST-NT-TT의 이끔부 및 대응부를 대조분석함으로써 학습자들이 NT 상에 기록한 대응부가 실제 TT에서 어떤 방법으로 구현되는가를 살펴 보았다. 이는 크게 4가지 형태(복구, 재현, 동일, 생략)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 결과는 다음 장에서 논한다.

4. 텍스트 분석 및 논의

4.1 ST의 이끔부 분석

ST 이끔부에 대한 통역 학습자의 NT와 TT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ST 이끔부를 아래 표1과 같이 선정했다. ST는 총 17개의 절로 구분되며, 13절은 안 갖춘 절(minor clause)로서 이끔부가 없으므로 16개 절에 대한 이끔부 분석이 이루어졌다. 복합절(clause complex)의 경우, 개개의 절로 구분하여 소수점 이하 번호를 부여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절은 절1이고 두 개의 절로 이루어진 복합절이므로 1.1과 1.2로 구분된다. 그런데, 1.1은 이끔부가 두 가지 메타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시 1.1a(대인적 의미)와 1.1b(경험적 의미)로 세분화했다. 대인적 의미 또는 텍스트적 의미가 이끔부에 포함되는 복합 이끔부

3) ST의 이끔부에 해당하는 요소를 NT와 TT에서 각각 찾아 이를 ‘대응부’라 칭했다. 그 이유는 이끔부 이론을 NT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아 ST의 이끔부에 대응하는 NT 요소를 찾아 이들을 대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ST의 이끔부에 대응하는 TT의 요소는 TT 자체의 이끔부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대응부’라는 명칭을 도입하였다.

(multiple theme)의 경우에는 첫 경험적 의미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이끔부에 포함된다. 절에서 이끔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문맥상 유추하여 ‘비명시적인 이끔부’를 괄호로 처리하여 제시했다.

〈표 1〉 ST 이끔부 분석 결과

절	이끔부	이끔부 특성	정보성	유표성
1.1a	Your Excellency Permanent Secretary Sethi Kamuhanda, My dear colleagues, Ladies and Gentlemen,	대인적(호격)	신정보	유표적
1.1b	Today	경험적(정황)	구정보	
1.2	(we)	경험적(참여자)	구정보	무표적
2.1	In the name of the Asian Diplomats’ Cultural Forum, and on behalf of the Chinese Embassy, the coordinator of this Festival	경험적(정황)	신정보	유표적
2.2	(I)	경험적(정황)	구정보	무표적
3	I	경험적(참여자)	구정보	무표적
4	The purpose of the Asian Film Festival	경험적(참여자)	신정보	무표적
5.1	Starting from 2006, to date	경험적(정황)	신정보	유표적
5.2a	and	텍스트적(첨가)	신정보	
5.2b	(it)	(경험적; 참여자)	구정보	무표적
6	The Festival	경험적(참여자)	구정보	무표적
7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is Festival	경험적(참여자)	신정보	무표적
8a	Ladies and gentlemen,	대인적(호격)	신정보	
8b	There	경험적(참여자)	신정보	무표적
9	They	경험적(참여자)	구정보	무표적
10	I	경험적(참여자)	구정보	무표적
11	(I)	(경험적; 참여자)	구정보	무표적
12.1a	Finally,	텍스트적(시간)	신정보	
12.1b	on behalf of Asian diplomatic missions and diplomats	경험적(정황)	신정보	유표적
12.2a	and	텍스트적(첨가)	신정보	
12.2b	(I)	(경험적; 참여자)	구정보	무표적
13	이끔부 없음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절은 정보성에 따라 신정보와 구정보로 구분된다. 복합 이끔부에서 대인적 또는 텍스트적 의미는 모두 신정보로 분류되었으며, 경험적 의미는 맥락에 따라 신정보 또는 구정보로 분류하였다. 단, 담화상 구정보이지만 문맥상으로는 신정보인 경우(8a, 12.1b)에는 신정보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이후에 살펴볼 NT의 TT에서의 구현 전략이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는 근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끔부의 유효성을 구분하였는데, 이끔부에 해당하는 경험적 의미에 참여자 외의 요소가 올 때 이를 유효적으로 보았다.⁴⁾ 정보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복합 이끔부의 경우 경험적 의미가 구분의 기준이 된다. 16개의 절 중에서 4개의 절이 유효적인 결과를 보였다. 아래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유효적인 절과 무효적인 절은 NT 표기나 TT 구현 전략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4.2 ST 이끔부에 대한 NT 및 TT 분석 결과

이 장에서는 ST 이끔부에 대한 NT 표기와 TT에서의 구현 전략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다. 아래 표2는 ST의 이끔부를 NT에 기록할 때 NT상의 이끔부 위치에 기록했는지의 여부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ST의 이끔부 일부만 NT에 표기한 경우도 ST 이끔부가 NT 이끔부 위치에 기록된 것으로 간주했다. 이는 통역 시 시간 제약 때문에 ST 이끔부 전체를 다 기록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일부만 기록해도 맥락에 의존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2의 우측 칸은 NT의 표기 내용이 TT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4가지 전략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각 전략의 명칭이 가리키는 바는 다음과 같다. 재현은 NT의 이끔부 기록이 실제 TT에서 그대로 발화되는 경우이고, 누락은 NT의 이끔부 기록이 TT에서 사라지는 경우이며, 복구는 NT에서 생략된 이끔부 정보가 TT에서 명시적으로 전달되는 경우이고, 동일은 NT에서 생략

4) 할리데이와 마티슨(2014: 98-99)은 선언절(declarative clause)에서 주어 외의 요소가 올 때 이를 유효적 이끔부(marked Theme)로 명명했다. 예를 들어 부사나 부사절, 전치사구, 보어 등이 이끔부 자리에 올 때 유효적 이끔부가 된다.

된 이끔부 정보가 TT에서도 생략된 경우를 가리킨다. 요약하면, 재현 및 누락은 NT에 ST의 이끔부가 명시적으로 기록되었을 때의 전략이고, 복구 및 동일은 NT에 ST의 이끔부가 기록되지 않았을 때의 전략이다. 아래 표에서 제시된 수치는 각 항목에 대한 결과를 보인 학생 수를 나타낸다.

〈표 2〉 ST 이끔부에 대한 NT 표기 및 NT의 TT 구현 전략

절	정보성	유표성	ST 이끔부에 대한 NT 표기		NT의 TT 구현 전략				
			이끔부 위치에 기록	생략	재현	누락	복구	동일	
1.1a	신	유	10		10				
1.1b	구		6	4	6		2	2	
1.2	구	무		10				10	
2.1	신	유	10		10				
2.2	구	무		10				10	
3	구	무		10			1	9	
4	신	무	9	1	9		1		
5.1	신	유	10		10				
5.2a	신	무	2	8	2		7	1	
5.2b	구			10			1	9	
6	구	무	3	7	2	1	3	4	
7	신	무	6	4	6		4		
8a	신	무	6	4	6		1	3	
8b	신			10			3	7	
9	구	무	2	8	2		6	2	
10	구	무	1	9		1	5	4	
11	구	무	1	9		1		9	
12.1a	신	유	7	3	6	1	1	2	
12.1b	신		10		10				
12.2a	신	무		10				10	
12.2b	구		1	9		1		9	
계			84	126	79	5	35	91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부 이끔부(a, b 구분)까지 포함한 총 사례는 21건으로 10명에 대한 총합계는 210건이다. 이 중에서 ST 이끔부에 대한 NT 표기를 기준으로 이끔부 위치에 기록된 사례가 84건, 생략된 사례가 126건이다. 이로써 생략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ST 이끔부가 무표적

구정보일 경우에 생략이 많이 나타났다.

NT의 TT 구현 전략에서는 동일이 가장 높은 수치인 91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생략된 NT 표기가 TT에서 동일하게 생략되었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항목은 재현으로 총 79건이며, NT에 표기한 내용이 TT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경우이다. 분석 결과를 통해, 학습자들이 NT에 기록하지 않은 내용을 TT에 누락하거나 복구한 경우(40건)보다 NT에 기록한 대로 TT에 그대로 구현하는 경우(170건)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장에서는 위 분석 결과를 네 가지 유형(유표적 신정보, 무표적 신정보, 유표적 구정보, 무표적 구정보)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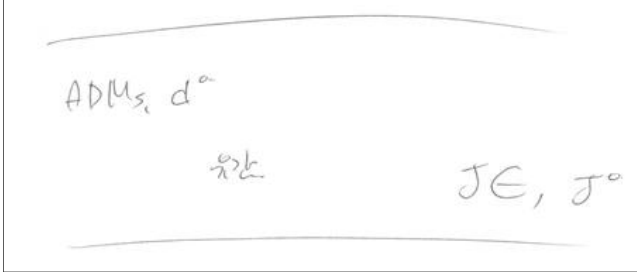
4.3 유형별 분석

각 유형별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ST 이끔부가 신정보이면서 유표적인 경우는 NT의 대응부가 모두 이끔부 위치에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1a, 2.1, 5.1, 12.1b절). 즉, NT에서의 표기가 의미 단위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서 역할을 했다. 이는 유표적인 신정보에 대해 학습자가 TT에서 누락을 최소화하고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댐(Dam 2004:189)이 자신의 연구 결과에서 노트의 양이 많을수록 더 정확한 통역으로 이어진다고 한 주장이 이를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유표적인 신정보의 경우, NT의 TT 구현 전략은 모두 재현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자들은 ST 이끔부를 NT에 충실하게 반영하였으며, 통역과정에서 이를 다시 TT에 구현했음을 알 수 있다. 단, 12.1a의 경우 finally는 유표적 신정보로서 시간상 정보를 제공하는 접속부사(temporal conjunctive adjuncts, Halliday & Mattiessen 2014: 108)인데, 7명이 NT에 이를 표기했으며, 이에 대한 TT 구현 전략은 재현(6건)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Finally와 같은 담화 표지어는 연설에서 담화의 종료를 알리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를 NT에 표기했고 이를 근거로 TT에서도 발화를 했다. NT에 표기하지 않은 학생 3명은 TT에서도 이를 생략했으며, NT에 표기를 했으나 TT에서 누락한 학생이 1명 있었고, 반대로 NT에는 표기하지 않았으나 TT에서 복구한 학생이 1명 있었다. 아래 그림 1과 2는 12.1(Finally, on behalf of As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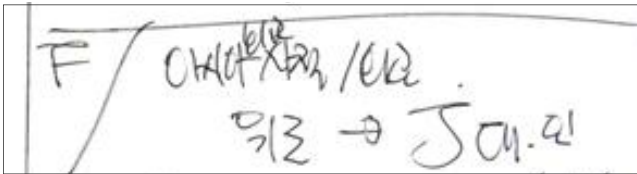
diplomatic missions and diplomats)에 대한 학생 5와 학생 7의 NT 사례인데, 학생 5는 NT에서 finally를 생략했고 TT에서도 이를 생략했으며 학생 7은 NT에서 finally를 표기했고 이를 TT에서 재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학생 5의 NT 사례(동일)



TT: 또한, 저는 아시아 외교 사절단과 외교관들을 대표하여...

〈그림 2〉 학생 7의 NT 사례(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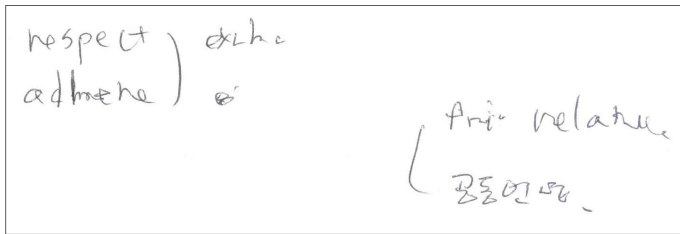


TT: 마지막으로, 아시아 외교 사절단과 외교관을 대신해서...

다음으로, ST 이끔부가 무표적인 신정보에 해당하는 4, 5.2, 7, 8, 12.2절에 대해 살펴보겠다. 여기서 이끔부가 연결어 and와 같은 텍스트적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5.2a, 12.2a)와 존재를 나타내는 there가 포함된 경우(8b)는 아래에서 별도로 논의하고자 한다. 4, 7, 8a에 대한 분석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ST의 이끔부에 대한 NT 표기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이끔부 위치에 기록하는 방식을 채택했고 TT에서는 재현으로 통역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NT에 ST 이끔부를 표기하지 않았는데, 4절(The purpose of the Asian Film Festival)의 경우 학생 1명이 NT에서 ST 이끔부를 생략했고 이후 TT에서는 ‘아시아 영화제 목적’이라고 통역해 기억에 의존하여 ST 이끔부를 복구하였음을 알 수 있

다. 7절(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is Festival)의 경우에도 4명이 NT에서 ST 이끔부를 생략했는데, 이들 역시 TT에서는 “설립과 발전”이라는 핵심어를 복구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림 3은 이에 대한 학생 2의 NT 사례이다. 한편, 8a의 ‘신사숙녀 여러분’이라는 호격은 6명이 NT에 표기를 했고 6명이 TT에 재현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림 3〉 학생 2의 NT 사례(복구)



TT: 이 영화제가 설립되고 발전되는 모습은 문화교류를 증진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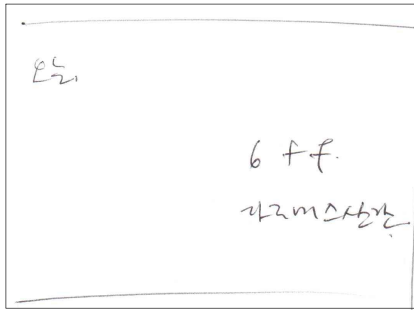
이끔부가 텍스트적 요소로 시작하는 5.2a와 12.2a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보였다. 먼저, 5.2a의 연결어 and는 첨언을 하는 접속부사(additive conjunctive adjuncts, Halliday & Mattiessen 2014: 108)인데 학습자 8명이 NT에서 생략했고 TT에서는 7명이 이를 복구하여 복구율이 높게 나타났다. 12.2a의 이끔부 and는 5.2a와 달리 NT에서 모두 생략되었으며 TT에서도 동일하게 생략되었다. 동일한 연결어 and가 이 두 절에서 다른 분석 결과를 보인 이유는 5절의 경우 5.1과 5.2가 내용상 흐름에서 정보를 병렬식으로 나열(become a window/and (it has become) an important platform)한 것에 반해 12절에서는 내용상 전환(I'd like to extend our sincere sympathies/ and (I) wish the Japanese people would overcome)이 이루어져 대다수의 학생들이 새 절로 의미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8b의 존재를 나타내는 there는 한국어로 통역될 경우 술어에 해당하므로 NT에서 이끔부 위치에 표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분석 결과에서도 학생 10명 모두 NT에서 이를 생략했으며 TT에서 ‘~이 있다’로 복구한 경우는 3건만 있었다. 그 외의 학생들은 문맥상 자연스럽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가령 ‘여기 함께 모이다’, ‘공동주최를 하다’, ‘참여

를 하다' 등이다.

유표적 구정보에 해당하는 절은 1.1 하나뿐인데 1.1b의 today는 NT에서 6명이 기록했고 TT에서는 재현(6건)이 가장 두드러졌다. 구정보의 특성상 쉽게 유추가 가능하고 today의 경우에는 의미 비중이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 다수는 이 정보를 NT에 기록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이로써 NT에 대한 의존율이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이에 대한 학생 10의 NT 사례이다.

〈그림 4〉 학생 10의 NT 사례(재현)



TT: 오늘 우리는 제6회 아시아 영화제를 텔아스 살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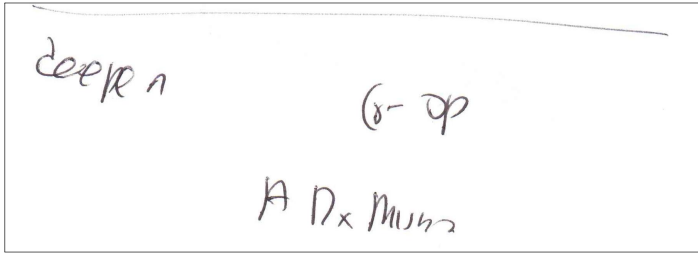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무표적 구정보의 분석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다. 여기서는 명시적인 이끔부와 비명시적인 이끔부로 구분하여 논하고자 한다. 명시적인 이끔부는 ST에서 이끔부를 실제로 발화를 한 일반적인 경우이고, 비명시적인 이끔부는 ST에서 이끔부를 발화하지 않았지만 본고에서 분석을 위해 설정한 이끔부로서 we(1.2), I(2.2, 11, 12.2b), it(5.2b)가 여기에 해당된다. 비명시적인 이끔부의 경우에는 NT에 표기하는 것이 쉽지 않고 TT에서 복구가 사실상 어렵거나 복구할 필요성이 높지 않아 대부분 생략으로 나타났다. TT에서도 동일하게 생략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나머지 명시적인 이끔부인 I(3, 10), the festival(6), they(9)도 NT에서의 생략이 두드러졌다. 3절 I의 경우에는 학습자 10명 모두 NT에서 이끔부를 생략했고 TT에서도 동일하게 생략이 이루어졌다. 10절 I는 9명이 NT에서 생략했으나 TT에서는 5명이 복구를 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를 보면 학습자들이 TT의 불필

요한 주어 생략에 대해 일관성을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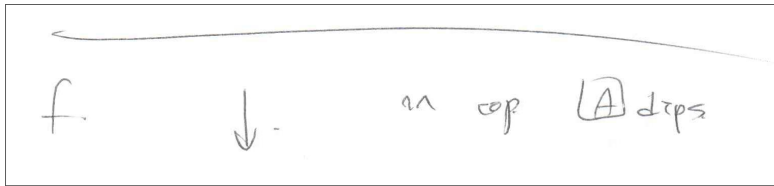
6절의 이끔부인 the festival은 7명이 NT에서 생략했고 3명이 NT에 기록을 했는데, TT에서는 3명이 이를 복구하고 2명이 재현하는 결과를 보였다. 복구된 경우는 ‘이 축제는’, ‘이 영화제는’ 등으로 표현되었고, 재현된 경우는 ‘이 영화제’, ‘본 영화제’ 등으로 통역되었다. ST의 이끔부를 TT에서 명시하는 대신 연결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이어나간 경우(4건)가 있었는데, 이는 학습자가 주어를 생략하여 자연스러운 TT를 생성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 그림 5, 6, 7은 6절에 대한 복구, 재현, 누락의 사례를 각각 보여준 것이다.

〈그림 5〉 학생 4의 NT 사례(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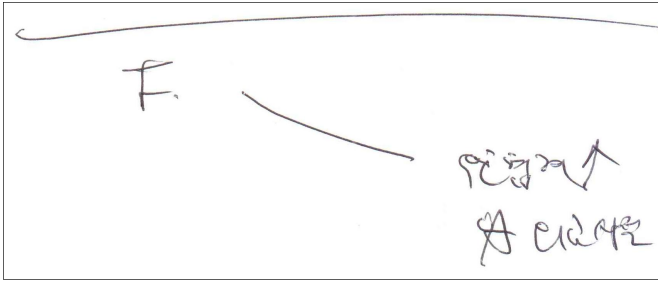
TT: 그리고 이 축제는 또한 아시아 외교 사절단 사이의 관계도 굳건히 하는...

〈그림 6〉 학생 5의 NT 사례(재현)



TT: 이 영화제는 또한 아시아 외교 사절단 간에 협력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그림 7〉 학생 6의 NT 사례(누락)



TT: 더불어 아시아 외교 사절단 사이에서 우호적인 협력을 증진시키는...

9절의 they는 앞 절의 ‘대사관 및 고위 위원회 10개’를 가리키는데 NT에서 생략이 8건으로 나타났고 TT에서는 복구(6건)와 재현(2건)이 이루어졌다. 복구 또는 재현으로 TT가 구현된 경우에는 ‘이 대표단들은’, ‘이들은’, ‘이 분들은’, ‘저희 개최위원회는’ 등으로 통역되었다.

한편, 10, 11, 12.2절에서 나타난 생략은 모두 화자인 ‘I’에 대한 것으로, 동일한 학생의 TT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는 개별 학습자의 개인적인 습관으로 볼 수 있으며, NT에 ST의 이끔부를 기록하고 통역과정에서는 다시 누락하는 반복적인 행태를 보였다.

위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ST 이끔부의 무표적 구정보를 NT에 기록하지 않았는데, 콘 & 알블미카사(Kohn & Albl-Mikasa 2002: 266)는 이에 대해 통역사에게 사전에 통역 원고를 제공하게 되면 관련 정보의 상당 부분이 노트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미 ST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표적 구정보를 기억해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워지므로 NT에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억으로 충분히 복구 가능한 정보까지 기록하여 재현하는 경우가 소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학습자 중 일부는 이미 알고 있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내용까지 노트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ST 이끔부의 정보성 및 유표성에 따른 NT의 TT 구현 방법 네 가지를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 3〉 ST 이끔부의 정보성 및 유효성에 따른 NT의 TT 구현 방법 요약

정보성	유효성	NT 이끔부 위치에 기록한 경우		NT 이끔부 위치에 기록 안 한 경우		합계
		재현	생략	복구	동일	
신정보	유효적	46	1	1	2	50
	무효적	23	0	16	21	60
구정보	유효적	6	0	2	2	10
	무효적	4	4	16	66	90
총계		79	5	35	91	210
백분율		37.62	2.38	16.67	43.33	100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고의 분석은 17개의 절 중에서 이끔부가 없는 13절을 제외한 16개 절에 대한 학생 10명의 선택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세부 이끔부를 포함하면 선택 가능한 항목은 총 21개로 학생 10명에 대한 총 경우의 수는 210건으로 집계된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NT의 TT 구현 전략으로 동일(91건, 43%)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학습자들이 ST 이끔부를 의도적으로 NT에 누락하고 이를 다시 TT에서 생략한 것으로 보기보다, ST 이끔부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비명시적인 이끔부의 비중이 커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명시적인 이끔부의 경우에도 대부분 화자인 I나 영화제 자체를 가리키는 the festival과 같은 말은 한국어 특성상 생략해도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으므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략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전략이 재현(79건, 38%)인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ST 이끔부를 NT에 기록하여 TT에서 그대로 발화하는 방식을 많이 선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역할 원고인 ST를 사전에 배부하고 이를 토대로 통역을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학습자에게는 NT 의존율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현과 동일의 수치가 높은 것은 학습자들이 NT에 기록하거나 생략한 ST 이끔부를 TT에 충실하게 반영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NT에 기록한 내용과 실제 TT에서 구현된 내용이 달라지는 복구와 생략에 대해 살펴보면, 복구의 경우에는 35건으로 약17%를 차지하는데, 이미 ST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복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다. 생략은 NT 상에 기록된 ST 이끔부가 TT에서 누락된 경우로 총 5건(2%)이 집계됐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된 것은 학습자가 동일한 원고를 사전에 연습하여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T 이끔부를 NT에 충실히 반영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고, 기억과 맥락에 의거하여 NT에 표기하지 않은 내용을 TT에서 복구하는 비율보다 NT의 표기를 TT에 충실히 반영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5. 결론

NT는 통역 학습자에게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는 것과 유사한 부담과 노력을 수반한다. 또한 교수자의 입장에서 정답이 없는(이지은 & 최문선 2012; Lim 2012) 방법론이기에 지도상의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NT의 체계를 체득하는 과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Chmiel 2010: 248) 지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SFG를 통한 학습자의 NT와 TT 분석은 객관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현재의 상태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이 이끔부라는 일부 현상에 국한된 점이라든가 ‘비명시적인 이끔부’의 설정으로 분석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동안 번역 연구에만 적용된 SFG 분석틀을 통역 연구에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메시지를 이끄는 출발점에서의 의미 단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뒤이어 나오는 정보의 방향 설정이나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끔부를 중심으로 NT의 표기 형태와 TT에서의 구현 전략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일반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미시적인 차원에서 ST의 이끔부에 대한 NT와 TT의 상관성 연구로 국한했지만, 향후 연구대상 범위를 통번역대학원 재학생, 통번역 전공 학부생, 통번역 전문인 등으로 확대하여 유사한 분석틀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도 시사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사전에 미리 배부한 텍스트를 토대로 한 분석결과뿐만 아니라 사전에 통역주제만

공지하고 즉석에서 ST를 듣고 통역한 분석결과와 대조하여 보는 것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이끔부를 넘어 관념적 의미와 대인적 의미의 층위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갖대로 통역의 제반 현상에 대한 분석을 확대해나가면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미라 (2012) 「한영 단편소설 번역에 있어 ‘이끔부(Theme)’의 선택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번역학, 무엇을 연구하는가: 언어적·문화적·사회적 접근』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53-83.
- 송연석 (2011) 「논문초록 한영번역에 대한 체계기능주의 문법적 분석 - 필드(담화 주제)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4(2): 153-76.
- 이지은 & 최문선 (2012) 「효과적인 순차통역 노트테이킹 교수법: 영한 순차통역 노트테이킹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6(4): 169-95.
- 이창수 (2001) 「Note-taking을 도착어로 할 때의 교육적 장점 연구」, 『통번역학연구』 5: 97-111.
- . (2012) 「영한번역에서 [프로세스 속성+사물] 패턴의 번역 실태와 번역투 문제 연구」, 『통번역학연구』 16(4): 197-220.
- 진실로 (2012) 「주제구조를 고려한 영한 번역전략」, 『통번역학연구』 16(4): 221-41.
- 최문선 (2012) 「통역 교육에서의 난이도와 난이도 요인 - 통역 교육 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5): 247-76.
- 한정은 (2013) 「통역 품질의 개념과 평가 주체에 관한 고찰」, 『통번역학연구』 17(2): 149-68.
- Ahrens, Barbara (2005) ‘Rozan and Matyssek: Are they really different? A Comparative synopsis of two classic note-taking schools’, *Forum* 3(2): 1-15.
- Butt, David, Fahey, Rhondda, Feez, Susan, and Spinks, Sue (2012) *Using Functional Grammar: An explorer's guide*, Victoria: Palgrave Macmillan.

- Chmiel, Agnieszka (2010) 'How effective is teaching note-taking to trainee interpreter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4(2): 233-50.
- Dam, Helle, V. (1998) 'Lexical similarity vs lexical dissimilarity in consecutive interpreting: A product-oriented study of form-based vs meaning-based interpreting', *The Translator* 4(1): 49-68.
- . (2004) 'What makes interpreters' notes efficient?: Features of (non-)efficiency in interpreters' notes for consecutive', in Yves Gambier, Miriam Shlesinger and Radegundis Stolze (eds.), *Doubts and Directions in Translation Studies: Selected contributions from the EST Congress, Lisbon 2004*, Amsterdam: John Benjamins, 183-97.
- González, Marta A. (2012) 'The language of consecutive interpreters' notes: Differences across levels of expertise', *Interpreting* 14(1), 55-72.
- Halliday, Micheal, A. K. and Mattiessen, Christian (2014)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New York: Routledge.
- Han, Song-Lee (2010) 'Exploring theme choices in an English TV documentary and its Korean translation: A Systemic Functional Approach', 『번역학연구』 11(2): 241-70.
- Kim, Mira (2009) 'Meaning-oriented assessment of translations: SFL and its application to formative assessment', in Claudia V. Angelelli and Holly E. Jacobson (eds.), *Testing and assessment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 a call for dialogue between research and practice*,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23-57.
- . (2007a) 'Translation Error Analysis: A Systemic Functional Grammar Approach', in Dorothy Kenny and Kyongjoo Ryou (eds.), *Boundaries: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Translation Studies*,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161-75.
- . (2007b) 'Using systemic functional text analysis for translator education: An illustration with a focus on the textual meaning',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2): 223-46.
- Kohn, Kurt and Albl-Mikasa, Michaela (2002) 'Note-taking in consecutive

interpreting: On the reconstruction of an individualised language',
Linguistica Antverpiensia 1, 257-72.

Lee, Chang-soo (2010) 'Translating Evaluative Language in Literary Translation
— With Examples from Jane Austen's *Pride and Prejudice*', 『통번역학연
구』 14(1): 145-66.

Lee, Sang-bin (2011) 'Fictional characterization and reader response: A
comparative transitivity analysis of Yi Sang's *Nalgae* and its translations
and a reader-response questionnaire survey', Ph.D,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im, Hyang-Ok (2006a) 'A post-mortem of note-taking', *Forum* 4(2): 89-112.

---. (2006b) 'Note-taking into B: A constant or constantly changing?' 『국제회
의 통역과 번역』 8(2): 141-62.

---. (2010) 'Doing a double take on note-taking', *Forum* 8(1): 161-79.

---. (2012) 'A critical analysis of note-taking', 『통역과 번역』 14(2): 233-53.

부록

**Speech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6th Asian Film Festival**

2011-04-20

By H.E. Ambassador Liu Xinsheng

Your Excellency Permanent Secretary Sethi Kamuhanda

My dear colleagues

Ladies and gentlemen,

Today, we get together to hold the opening ceremony for the 6th Asian Film Festival in Dar es Salaam. In the name of the Asian Diplomats' Cultural Forum, and on behalf of the Chinese Embassy, the coordinator of this Festival, I would like to extend our warm welcome to our distinguished guests and audience, to express our sincere thanks to Tanzanian Ministry of Information, Youth, Culture and Sports for its energetic support.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high appreciations to all hosting embassies and high commissions for their kind efforts and cooperation.

The purpose of the Asian Film Festival is to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diversity and harmony of our colorful Asian culture. Starting from 2006, to date, it has become a window for Tanzanian people to understand Asian country and people, and an important platform to enhance the 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Asian

countries and Tanzania. The Festival also has deepened the friendly cooperation among Asian diplomatic missions.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is Festival shows that respecting cultural diversity and adhering to cultural exchange are conducive to the very important and friendly relations and to the common progress of human civilization.

Ladies and gentlemen,

There are 10 embassies/high commissions co-hosting this Festival which are China, India, Indonesia, Iran, Japan, the Republic of Korea, Pakistan, Palestine, U.A.E and Vietnam, the most in number since the Festival's establishment. They have selected 10 excellent feature films characteristic of respective culture to be screened from April 15-24. I believe that people would enjoy. Wish the 6th Asian Film Festival a full success!

Finally, on behalf of Asian diplomatic missions and diplomats, I'd like to extend our sincere sympathies to the Japanese Embassy and the Japanese people for the huge life and property loss inflicted by the recent massive earthquake and tsunami in Japan, and wish the Japanese people would overcome the difficulties and rebuild their homeland at an earlier date.

Thank you very much!

[Abstract]

An Analysis of Themes in Interpreting Notes and Interpreted Texts

Lee, June & Kim, Mira

(Pusan National University &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Using Systemic Functional Grammar (SFG), this study explores the question of how trainee interpreters handle source text (ST) Themes in their interpreting notes and how they interpret them into the target language. SFG has been applied to translation studies and translator education as a tool to explain different translation choices and evaluate translation quality. However, its usefulness for interpreting studies and/or interpreter education has been hardly explored yet.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nalysed Themes of a short English speech text used as ST, examined how interpreting trainees handled the ST Themes when they took notes (NT) for interpreting and how they interpreted them into the Korean target text (TT). It discusses four selected salient patterns of notetaking and interpreting relations observed from the data analysis such as reflection, omission, restoration and ellipsis. The paper concludes with some suggestions for further interpreting research based on SFG.

▶ Key Words: SFG, Theme/Rheme, interpreting, notetaking

이주은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BK21 플러스 연구원

junelectrans@gmail.com

관심분야: 통번역 교육, SFG, 영상번역, 종교텍스트 통번역

김미라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Senior Lecturer

mira.kim@unsw.edu.au

관심분야: 통번역 교육, 통번역 평가, 번역한국어의 SFG 접근, 고급 언어 습득,
통번역의 Theme/Rheme

논문투고일: 2014년 5월 1일

심사완료일: 2014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14년 6월 16일